

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	과 장 이대원	042-481-5063
	국제협력과	서기관 김승오	042-481-8659
	특허심사기획국	과 장 신원혜	042-481-8321
	특허심사제도과	사무관 강희만	042-481-5400
 		2020년 6월 30일(화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

- 특허청, 천연약재 원료 부국 라오스와 심사협력 강화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6월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(국장 칸라시 쿠보 운판)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,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(Patent Recognition Program, PRP)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-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,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 -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,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여, 본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.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이다.
 -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,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,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-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%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으로, 최근 3년간 6%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, 동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.
 - 특허인정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한편,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,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.
 -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, 나고야 의정서*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,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.
 - *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 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(2017. 8. 17. 한국에서 발효)
 - 그동안 특허청은 작년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맺고,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, 라오스 특허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.
 -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히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코로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히며, “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,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”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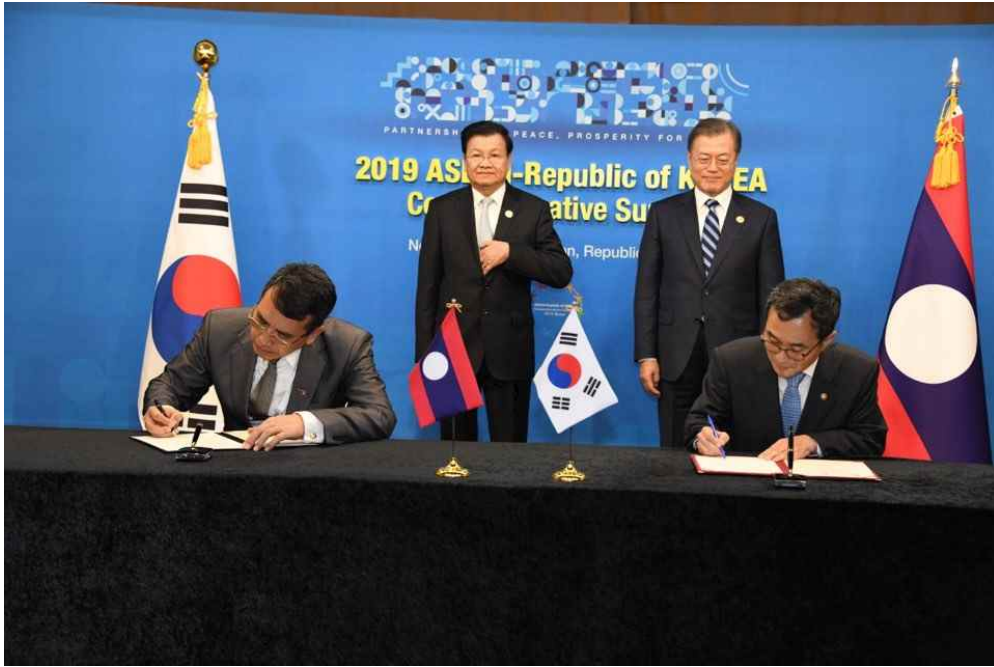
□ 약재 재배 현황

- 산지가 많은 라오스에서는 전통의약연구소를 통해 재배단지를 조성, 운영하고 있음
- 라오스에 자라는 약재는 약 2000종*으로, 강황 2종(*Curcuma longa*, *Curcuma zanthorrhiza*)과 고양이수염(*Orthosiphon aristatus*), 만삼(*Codonopsis pilosula*), 사인(*Amomi Fuctus*)을 주로 재배
- *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약재는 사인(砂仁), 강황, 아출, 울금, 석곡, 초과, 초두구, 계혈등, 고량강 등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30여종의 천연약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, 라오스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입원으로 평가되고 있음

□ 약재 개발 정책

- 라오스는 한약재가 흔하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는 현대의약보다는 천연약재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, 국민들도 생약(raw material)을 구매해 치료제로 쓰는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음
- 라오스는 전통의약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로, '19년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약전을 만든바 있음
- 최근에는 한국의 한의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, 한국으로부터 분석 장비나 표준시약을 지원받거나,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
- ※ 실제로 라오스 보건부 전통의약연구소 '마놀락 반나누봉' 연구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일행이 올해 초(1.20.~2.14) 4주간 한국한의학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개최한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한 바 있음

[참고사진]



특허청장(박원주)과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(수리우동 순다라, Sourioudong Sundara)은 한국과 라오스 양국의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,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했고,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'특허인정협력'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.(2019. 11. 25, 부산).



박원주 특허청장은 수리우동 순다라(Sourioudong Sundara)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과 정상 임석 下 MOU 체결을 마친 후,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'특허인정협력'을 조속히 체결하는데 합의했다(2019. 11. 25, 부산).